

연세의료원 사례발표

이진무
연세의료원 적정진료관리실

세브란스병원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정진료관리실"이 창설되었음. 창설되면서 실장, 수간호사, 의무기록사 및 사무보조원 각 1명씩 4명의 직원이 발령받아 업무를 시작 하였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느낀 소감은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업무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조직체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하는 것이었음. 초기에는 위의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한 명문화한 규정이 없었으며 단, 직제 신설 요청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필요성

전문적 진료를 중심으로 이에 관련되는 주변행위 및 병원 업무 일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의료수준의 향상은 물론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가져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

2. 업 무

- 1) 진료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2) 진료지원 업무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
- 3) 의료이용도 조사
- 4) 위험도관리

3. 행정조직체계 : 병원장 직속으로 한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건데, “적정진료관리실”은 진료 전반에 관련된 업무들을 계속하여 조사분석 및 개선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시행함은 물론 만족한

대 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구라 할 수 있음. 여기에서 중요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QI(의료질향상)”가 병원책임자들로부터 하향성으로 내려오는 지시행정이 아니라, 병원종사자들로부터 올라가는 상향성 행정지침이라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병원직원 스스로가 의욕적으로 진료행위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음 이와 같이 QI 활동은 관련되는 병원직원들이 참여하는 활동모임(team)을 구성해야 하므로 회의를 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직원 대상 교육이 첫 단계로 필요함.

세브란스병원에는 95년 12월부터 QI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으며 재원일 수 단축을 위한 CQI team 등 몇 개의 team을 현재 운영하고 있음.